

# 국어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 원인 재고

정영호\*

|| 차례 ||

- I. 서론
- II. 전설성 자질과 동화 현상
  - 1. 전설성 자질의 음성적 성격
  - 2. 전설성 동화 현상
- III. 모음체계의 변화와 단모음화의 원인
  - 1. 모음체계 변화에 의한 단모음화
  - 2. 전설성 동화에 의한 단모음화
- IV. 결론

## 【국문초록】

자음과 모음의 공통자질인 [전설성]을 통해 근대국어 후기에 일어난 일련의 음운현상을 전설성 동화로 해석할 수 있다. 피동화음에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자음이 [전설성]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하향이중모음 중에서 ‘외, 위’의 단모음화도 선행자음이 주로 [전설성]이기 때문에 전설성 동화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18세기를 전후하여 일어난 일련의 모음변화는 [전설성]에 영향을 받은 전설성 동화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는 ‘ㅇ’의 소실로 인한 모음체계의 변화와 전설성 자질에 의한 전설성 동화가 원인이 되어 일어났다. ‘애, 예’는 주로 모음체계의 공백 때문에 단모음화되지만 이중모음 내부의 상호동화에 의해서도 단모음화가 일어났다. ‘외, 위’는 전설성 자음 뒤 환경에서 상호동화 혹은 이중동화에 의해 단모음화가 시작되어 순자음 뒤, 어두의 음절초성이 없는 환경까지 확산되었다.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는 음절 주음과 부음이 서로 ‘혀의 높이’ 혹은 ‘입술의 모양과

---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혀의 전후 위치’에 의해 동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상호동화에 해당한다. 특히 ‘외, 위’는 피동화음 앞뒤에 있는 두 소리가 동시에 전설성의 동화음이기 때문에 이중동화로도 볼 수 있다.

주제어 : 하향이중모음, 단모음화, 전설성 자질, 동화, 모음체계 변화

## I. 서론

18세기 무렵부터 시작된 중세국어 하향이중모음들의 단모음화는 변화의 과정과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표기상으로 단모음화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모음체계의 변화에 따른 공백, 이중모음의 구조로 인한 동화, 이중모음의 음성적 변이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sup>1)</sup> 또한 ‘이, 애, 예, 외, 위’의 단모음화 원인을 동일한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였다.

음운의 변화 기제는 모음체계의 변화와 더불어 발생하여 어떤 음운 현상에 적용되고, 이 기제는 동시대에 일어난 다른 음운 현상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대국어 후기의 ‘으’ 소실로 인한 모음체계의 변화 과정에서 일어난 움라우트,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 등이 역동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대국어 후기에 일어난 일련의 모음 변화에서도 동일한 기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일어난 모음 변화에는 비원순모음화(오>어), 전설모음화(으>이), ‘어’의 후설화(으>어) 등이 있다. 이러한 모음 변화에서 변화를 겪는 모음에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자음이 전설성 자음임이 특징적이다. 이

1) 단모음화의 원인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는 III장 1절에서 이루어진다.

전설성 자음이 이들의 변화 기제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의 경우도 근대국어 후기의 일련의 모음 변화와 동시대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들이 어떤 관련을 가졌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모음 변화가 공통적으로 ‘으’ 음의 소실에 따른 모음체계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여기에 이들 변화들이 전설성 자질에 의한 전설성 동화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면서 일어났다는 점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가 모음체계에서 ‘으’가 소실됨으로써 일어난 모음체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전설성 동화 현상과도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찰해 본다. 하향이중모음 중에서 ‘외, 위’는 주로 전설성 자음 뒤 환경에서 단모음화된 것임을 확인하여, 이 전설성 자음이 하향이중모음 단모음화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먼저 2장에서는 국어의 자음과 모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위치 자질인 [±전설성]의 음성적 성격을 알아 본다. 그리고 근대국어 후기에 일어난 일련의 음운현상이 [±전설성]에 의한 전설성 동화 현상임을 밝힌다. 3장에서는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의 원인이 모음체계의 변화에 따른 전설계열의 공백, 이중모음의 내부 구조에서 일어난 전설성 동화에 있음을 고찰함으로써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 원인에 대해 재조명하도록 한다.

## II. 전설성 자질과 동화 현상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18세기 전후에는 전설성 자질과 관련된 음운현상이 계기적으로 일어났다. 여기서는 단모음화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우선 전설성 자질에 대해 알아 보고, 이 자질에 의해 일어난 전설성 동화 현상의 예를 살펴 본다.

## 1. 전설성 자질의 음성적 성격

국어의 분절음 연쇄에서 일어나는 모음과 관련된 음운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labial] 혹은 [round], [front] 혹은 [back], [high] 혹은 [low] 등의 자질이 이용된다. 또한 자음과 관련된 음운현상에는 [palatal], [coronal], [grave], [nasal], [sonorant], [tense], [aspirated] 등의 자질이 이용된다. 아울러 야콥슨 등에 의해 언급된 [grave] 자질을 국어에 도입하여 [+grave] 자질을 지닌 자음을 변자음(peripheral consonants), [-grave] 자질을 지닌 자음을 중자음(central consonants)으로 구분하여 자음음운현상을 설명하기도 한다.<sup>2)</sup>

국어의 자음에 의한 모음의 동화현상 혹은 모음에 의한 자음의 동화현상을 설명할 때 자음과 모음에 공통적인 자질이 효과적일 수 있다.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설성 자질([front])은 공통자질로서 분절음의 연쇄에서 일어나는 동화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자질은 근대국어 후기에 일어난 움라우트가 모음의 전설성 동화라는 점을 드러내는 데도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sup>

2) Jakobson and Halle(1956:29)에서 정의된 음향적 자질인 '[grave]/[acute]'는 Chomsky and Halle(1968:304-306)에서 '[anterior]/[coronal]'와 같은 조음적 자질로 대체된다. 이에 대해 Hyman(1975:48)에서는 '[anterior]'는 모음에 적용되지 않고, 미국 영어에서 '[ə]'와 같은 설전 모음은 '[+coronal]'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국어에서 '[coronal]'은 모음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화현상을 설명할 때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anterior]/[coronal]'를 대신하여 '전설성[frontal]'을 설정한 배주채(1996:107-110)에 따르면 자음의 조음위치 자질인 '전설성'은 '혀끝이나 전설의 조음적 역할이 큰 특성'을 지닌다. 모음에서 '전설성'은 '혀의 앞뒤 위치'를 구별해 주는 자질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국어에서 자음과 모음의 공통적 자질은 음운현상, 특히 동화현상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전설성[front]'을 사용한다.

3) 송철의(1996:352)에서는 움라우트에 대해 [front]를 설정하여 전설모음화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김차균(1992:223)에서도 [전설성]을 설정하였으나 국어의 음운현상과 관련하여 설명하지는 않았다.

국어의 자음 중에서 [+전설성] 자질은 ‘ㄷ,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ㄴ, ㄹ’가 해당된다. 이 자음들은 [+coronal], [-grave] 혹은 중자음으로 분류되기도 한다.<sup>4)</sup> 이들 자질 중에서 [grave] 자질은 [coronal] 자질을 대신하여 국어의 여러 자음음운현상을 설명할 때 이용되었다. 특히 순음과 연구개음에 의한 동화현상인 변자음화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5)</sup>

자음과 모음의 공통자질인 전설성 자질을 가지고 국어의 음운현상을 설명하면 무엇보다도 그 동기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 먼저 [grave] 자질과 관련된 변자음화의 경우는 동화주가 순음 혹은 연구개음에 의해 일어난 위치 동화이다. 그런데 본고의 자질 분류에 의하면 [-전설성] 자음은 ‘순음’과 ‘연구개음’이 자연부류를 형성하기 때문에 [-전설성] 자질에 대한 하위 분류가 필요하다.<sup>6)</sup> 여기에는 [전부성](前部性)과 [후부성](後部性)의 두 가지가 가능하지만 위치동화임을 잘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전부성]보다 [후부성]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후부 변자음화(받고→받꼬→박꼬)는 [-후부성][+후부성]→[+후부성][+후부성]([-F][+F]→[+F][+F])과 같이 설명할 수 있어 위치동화 현상임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부 변자음화(낮보다→남보다→납보다)는 [-순음성][+순음성]→[+순음성][+순음성]([-F][+F]→[+F][+F])과 같이 자음과 모음의 공통자질인 [순음성]을 가지고 순음화로 해석할 수 있다.<sup>7)</sup>

4) 이병근(1977/1979:8)에서는 [coronal]에는 국어의 경구개음인 ‘ㅌ, ㅌ, ㅌ’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생성음운론식 명명법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5) 변자음화에 대해서는 이병근(1977/1979:5-10)을 참고하기 바란다.

6) 정인호(2006:31-32)에서는 [grave] 자질이 음향적 성격과 조음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조음 자질만으로도 국어의 음운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grave]가 아닌 [±전설성]과 [±전부성]을 사용하고 있다.

7) 본고에서 [±후부성]과 [±순음성]을 통해 이른바 변자음화를 설명하려는 의도는 이들이 위치동화 현상임을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연구개음화와 순음화로 설명

현대국어에서 개재자음이 [+grave]일 때만 일어난다고 하는 음라우트를 설명할 때도 전설성의 [ $\pm$ front] 자질을 이용하면 음성적으로 설득력을 얻게 된다.<sup>8)</sup> 만약 [V, +grave][C, -grave][V, -grave]와 같이 보게 되면 음라우트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이 현상이 전설모음화라는 사실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못한다.

모음에 의한 자음동화현상의 하나인 구개음화의 경우도 전설성 자질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ㄱ구개음화와 ㅎ구개음화는 [C, -front][V, +front]가 [C, +front][V, +front]([-F][+F]>[+F][+F])로 되는 전설성 동화로 봄으로써 음운론적 동인이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ㄷ구개음화에 대해서는 전설성 자질 외에 자음에만 적용되는 하위자질인 구개성 자질도 필요하다.<sup>9)</sup>

지금까지 18세기 전후를 기점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일련의 모음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자질을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coronal], [grave] 혹은 변자음과 중자음 환경이 이용되어 왔으나, 개재자음이 있는 음라우트, ㄱ구개음화와 ㅎ구개음화가 전설성의 동화라는 점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전설성 자질을 이용하기로 한다.

## 2. 전설성 동화 현상

동화란 하나의 분절음이 다른 분절음과 음운환경이 같거나 비슷하게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전설성 동화는 [-전설성]의 분절음이 [+

하기도 한다(최명옥 1982:148-149).

- 8) ‘산(山)+이’가 [\*새니]로 음라우트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조음적인 면에서 찾을 수 있다. 즉, [V, -front][C, +front][V, +front]와 같이 보게 되면 제1음절의 ‘아’를 발음한 후 혀끝은 곧바로 ‘니’의 전설성 자음의 발음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제2음절 전설모음 ‘이’의 영향이 ‘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 9) 정인호(2006:32)에서처럼 [+전설성] 자음의 하위 자질로 [ $\pm$ 설면성]을 설정할 수도 있다. 즉, [C, +전설성, -설면성][V, +전설성]이 [C, +전설성, +설면성][V, +전설성]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전설성]의 분절음의 영향을 받아 [+전설성]으로 바뀌는 것이다([-F][+F]([-F][+F])>[+F][+F]). 근대국어에는 전설성 동화로도 해석이 가능한 음운현상들이 몇 가지 존재한다.<sup>10)</sup>

- (1) ㄱ. 익기논<얏기-(惜), 더리고<더리-(煎), 메긴<머기-(食), 기더려  
 <기드려-(待), 지팡이<지팡이(杖), 식기<삿기(煮)
- ㄴ. 찻타<쌩-<당-(搗擣), 씨다<찌-(蒸了), 직히다<딛히다(守了), 고  
 지식<고디식(老實), 좀쳐로<터로
- ㄷ. 몬져>먼저(先), 보리>버리(大麥), 포대기>퍼대기(襪), 보선>버  
 선(襪), 모처럼>머처럼, 보태다>버태다
- ㄹ. 이슬>이실(露), 쓸->썰-(掃), 오줌>오짐(尿), 아침>아침(朝), 무  
 름>무림(膝)
- ㅁ. 다섯>다섯(五), 턱>턱(頤), 느리->너리-(降), 도죽>도적(賊), 일  
 쉼->일켄(稱)

(1ㄱ)은 18세기와 19세기의 교체기에 일어난 음라우트로 동화주 ‘이’에 의해 ‘a’가 ‘ε’로, ‘ə’가 ‘e’로 변한 것이다. 이것은 [V, -전설성][V, +전설성]이 [V, +전설성][V, +전설성]([-F][+F]>[+F][+F])이 되는 전설성 동화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모음에 의한 모음 동화로 역행동화에 해당하고, [±전설성] 자질을 이용함으로써 전설성 동화임을 부각시킬 수 있다.<sup>11)</sup>

(1ㄴ)은 17세기와 18세기의 교체기에 일어난 구개음화로 동화주 ‘이’에 의해 ‘비구개음’이 ‘구개음’으로 변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ㄷ구

10) (1ㄱ, ㄴ)은 이기문(1998:208-212), (1ㄷ)은 이병근(1979:148-152), (1ㄹ)은 백두현(1992:256-257)에서 가져온 것이다.

11) 김봉국(2010:45)에서는 음라우트처럼 보이는 예들이 단모음이었는지 이중모음이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하였다. 필자는 18세기 무림의 ‘으’ 소실에 따른 모음체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ε, e’로 단모음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시한다. 이러한 모음체계상의 ‘ε, e’의 존재는 (1ㄱ)의 예를 음라우트로 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개음화는 ㄱ구개음화와 ㅎ구개음화와 달리 엄밀한 의미에서는 전설성 동화가 아니다. 그러나 [C, +전설성, -구개성][V, +전설성]이 [C, +전설성, +구개성][V, +전설성]([-F][+F]>[+F][+F])로 되는 전설성의 구개적 동화현상으로 해석하기로 한다. 모음에 의한 자음 동화로 역행동화에 해당하고, [±전설성]과 그 하위자질인 [±구개성] 자질을 통해 전설성의 성격을 띤 구개음화로 보기로 한다.

(1ㄷ)은 근대국어에서 일어난 비원순모음화로 알려진 것으로 [+순음성]인 ‘오’가 [-순음성]인 ‘어’가 된다. 이 예는 피동화음인 ‘오’에 후행하는 자음이 전설성 자음이다. 이 경우도 [V, -전설성][C, +전설성]이 [V, +전설성][C, +전설성]([-F][+F]>[+F][+F])이 되는 전설성 동화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오’가 후술할 (2ㄱ) 체계에서 후행하는 전설성 자음에 의해 전설에 가까운(혹은 중설) ‘어’로 변환 것이다. 이렇게 보면 (1ㄷ)은 자음에 의한 모음 동화로 역행동화에 해당한다.

(1ㄹ)은 18세기 후기부터 일어난 일종의 전설모음화로 선행음이 전설성 자음이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으’가 ‘이’로 변환다. 이것은 전형적인 전설성 동화 현상으로 [C, +전설성][V, -전설성]이 [C, +전설성][V, +전설성]([+F][-F]>[+F][+F])이 된다. 또한 자음에 의한 모음 동화로 순행동화에 해당한다.<sup>12)</sup>

(1ㄴ)은 ‘으’의 소실 무렵에 일어난 ‘으>어’의 변화로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자음이 전설성 자음이라는 특성을 지닌다.<sup>13)</sup> 우선 이 시기의 ‘으’는 [-전설

12) 김영선(2006:216-222)에서는 개화기 국어의 /l, j/ 관련 음운현상을 다루면서 ‘으>어’에 대해 ‘으’에 선행하는 구개화된 치음에 의한 변화로 파악하였다. 만약 (1ㄹ)을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back] 자질로 설명하면 [C, -후설성][V, +후설성]이 [C, -후설성][V, -후설성]되는 것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는 ‘[-F][+F]>[-F][-F]’가 되어 동화현상임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 송철의(1996:345-346)에서는 동화현상을 ‘[-F][+F]([+F][-F])>[+F][+F]’로 나타낼 때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13) 정영호(2009:199-206)에서는 ‘으>어’ 변화의 원인에 대해 그 변화의 방향에 의문을

성], ‘어’는 전설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 [+전설성]로 설정된다.<sup>14)</sup> 순행 동화일 경우는 [C, +전설성][V, -전설성]이 [C, +전설성][V, +전설성] ([+F][-F]>[+F][+F])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역행동화일 경우는 [V, -전설성][C, +전설성]이 [V, +전설성][C, +전설성]([-F][+F]>[+F][+F])로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둘 다 자음에 의한 모음 동화로 전설성 동화현상에 해당한다.

결국 (1)은 근대국어 후기에 일어난 변화로 ‘움라우트, 구개음화, 비원순모음화, 전설모음화, ‘어’의 후설화’로 불려진 것들이지만 전설성이라는 자질과 관련하여 일어난 전설성 동화현상으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 즉, 이들이 주로 ‘어’ 음의 소실로 인한 모음체계의 변화 과정에서 일어난 전설성 동화에 의한 변화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sup>15)</sup>

### Ⅲ. 모음체계의 변화와 단모음화의 원인

18세기 무렵의 모음체계 변화 과정에서 전설성 자질이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 봄으로써 근대후기에 일어난 단모음화의 원인을 파악해 보도록 한다.

---

가지고 ‘어’에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전설성 자음이 이 변화를 이끌었다고 보았다. 전설성 자음이 선행할 경우는 순행동화, 후행할 경우는 역행동화가 일어난다.

14) 이전 시기의 ‘어’는 ‘오’와 서로 인접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김완진 1978:132) [-front]로 본 것이고, ‘어’의 경우는 전설쪽으로 약간 기울져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김완진 1963/1971:15) [+front]로 본 것이다.

15) 특히 (1ㄷ)~(1ㄱ)을 전설성 동화로 보는 데에는 한영균(1990:101-103)과 김현(2008:17-20)의 연구가 도움이 된다. 전자에서는 ‘i, j’의 조음상의 견인력에 의해 연쇄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제시하였다. 후자에서는 현대 중부방언의 ‘어’가 반모음 ‘j’나 치조음, 경구개음(본고의 전설성 분절음) 뒤에서 전설화된다고 언급하였다.

## 1. 모음체계 변화에 의한 단모음화

지금까지 이루어진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 원인에 대한 논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모음체계의 공백, 이중모음의 구조, 이중모음 음성적 변이 등과 관련한 논의가 그것인데, 이들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모음 추이로 인한 전설모음계열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보는 연구는 김완진(1963/1971:21), 김방한(1964:76), 도수희(1983:125) 등이 있다. 김완진(1971)에서는 ‘ㅇ’의 소멸과 단모음화현상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김방한(1964)에서는 ‘ㅇ’의 소실로 인해 모음조화의 동요와 ‘어’의 중설화가 일어나 전설모음계열에 ‘구조상의 구멍’이 생겨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도수희(1983)에서는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가 전설부의 ‘어, 이’ 후퇴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일어났고, 아울러 단모음화에 대해 *y*를 동화주로 한 구개음화적 역할에 의한 소산으로 보았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단모음화의 원인을 모음체계의 공백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Kim C, W(1968/1988:483-484)에서는 모음 전설화 규칙과 하향성 *y*-삭제 규칙을 설정하여 ‘/əy/→ey→[e]’ 등으로 파악한다. 단모음화의 중간 과정으로 설정한 ‘ey’, ‘ey’ 등에서 전설성이 중복되기 때문에 음절 부음 ‘y’의 탈락이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역으로 ‘ey’, ‘ey’는 전설성 중복에 의해 ‘y’의 탈락이 일반적이므로 이와 같은 모음연쇄는 불가능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연구에서 설정한 모음 전설화 규칙과 하향성 *y*-삭제 규칙은 추상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sup>16)</sup>

16) 이 두 규칙을 부정하는 이병건(1976:188)에서는 모음 축약 규칙이라는 단일 과정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 원인에 대한 추상적 해석을 극복하기 위해 최전승(1978:210)에서는 이중모음의 구조 자체에서 일어난 일종의 동화 작용( $\text{ay} \rightarrow \text{a}^y \rightarrow \text{e}$ )으로 파악하여 추상성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오종갑(1983/1988:178)에서는 y계 상향이중모음이나 y계 하향이중모음이 다 같이 y동화에 의해 단모음화 된 것으로 보았다. 김성규(2003:173-174)에서도 ‘에, 애, 외, 위’ 등이 이중모음에서 단모음으로 변화기 전에 음절 핵모음이 음성적 차원의 전설모음화를 겪었다고 본다. Young-key Kim-Renaud(1986:126)에서는 두 모음의 중간 정도(midway)의 모음으로 변한다고 하였다.<sup>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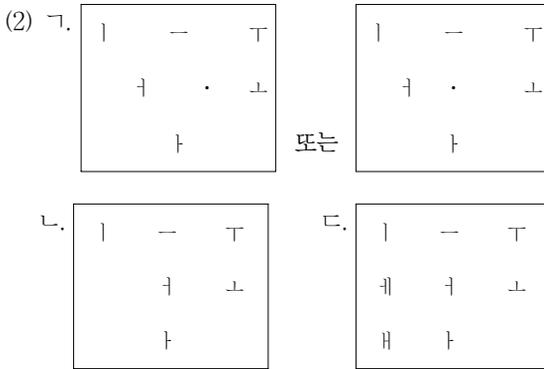
반면 김완진(1963/1971:21-22)과 정인호(2006:77)에서는 두 모음 모두의 음성적 변이에 의한 변화로 보았다. 이 견해도 음운변화의 음성적 점진성을 감안하여 그 중간 과정을 설정하고 있는데, 중간 과정에서 실현된다고 하는 음성의 실체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 만약 이중모음 ‘애’와 ‘외’의 단모음화 중간 과정으로 ‘[ae]’와 ‘[æ]’가 파악된다 하더라도, 이와 평행한 이중모음 ‘에, 위’의 단모음화 중간 과정의 음이 실재하지 않는 것이 부담이 된다.

그렇지만 하향이중모음이 일종의 동화 작용에 의해 단모음화가 일어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여기서 하향이중모음 중에서 ‘익, 애, 에’의 단모음화가 먼저 일어나고 19세기 후기에 ‘외, 위’의 단모음화가 일어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익, 애, 에’의 단모음화의 원인과 ‘외, 위’의 단모음화의 원인이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sup>18)</sup>

17) ‘midway’라는 용어는 이승녕(1954:357-358)에서의 ‘Kontraktion(收約)’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인다. 즉, ‘수약’은 ‘한 단어 내에서 양모음간의 거의 중간 위치의 다른 한 모음으로 발달하는 현상’이다.

18) 한영균(1991:251)에서는 현대국어의 용언 어간말음이 ‘내, 귀’인 경우와 ‘니, 기’인 경우 서로 다른 모음교체양상을 보이는 것을 가지고, ‘aj, aj, oj, uj’의 단모음화가 동일한 과정을 겪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우선 하향이중모음 ‘이, 애, 에’의 단모음화 원인은 모음체계의 변화에 따른 체계적 공백 때문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sup>19)</sup> 다음의 (2ㄱ)은 ‘으’가 소실되기 전인 18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모음체계이다.<sup>20)</sup> 또 (2ㄴ)은 ‘으’의 소실된 직후의 모음체계이며, (2ㄷ)은 ‘이, 애, 에’의 단모음화 이후의 모음 체계이다.



(2ㄱ)의 모음체계에서 ‘으’가 소실된 후의 (2ㄴ)의 모음체계는 전설계열

19) 최전승(1978:209-210)에서는 i역행동화를 이중모음화(규칙1)와 단모음화(규칙2)로 나누고, 19세기에는 규칙1, 2가 음라우트(규칙3)로 변모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중모음화에서 부음 y는 전설화의 성분으로 기능한다고 하였다(ə→ə<sup>y</sup>→e). 이에 대해 김주필(1994:122)에서는 ‘구개성 반모음 첨가 현상’으로 보고 있다. 신승용(1997:45-46)에서는 j첨가의 동인을 문제 삼았으며, 이중모음(ㅑ, ㅕ)의 단모음화 원인으로 음성층위에 존재하던 음라우트와 체계 내적인 불균형성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əy]~[e], [ay]~[e]의 과도기적 시기를 거쳐 [əy], [ay]가 각각 [e], [ɛ]로 합류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필자는 이중모음화(규칙1)가 동화로 보기에겐 음성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므로 전설성 자질의 확산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단정은 하지 않는다.

20) ‘으’가 소실되기 전의 모음체계를 (2ㄱ)으로 보는 이유는 김완진(1978:134)의 ‘어’의 후설화를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기존 연구에서처럼 ‘으’를 후설저모음으로 보게 되면 ‘으>어’를 대각선상의 변화로 간주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정영호(2009:206-210)을 참고하기 바란다.

의 불균형을 가져왔다. 이러한 불균형이 음절 주음으로 후설계열의 ‘어’와 ‘아’를 가지고 있는 하향이중모음 ‘에’와 ‘애’의 단모음화를 유발한 것이다. 결국 하향이중모음 ‘이, 애, 에’의 단모음화의 주된 원인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모음체계의 공백 때문이다.<sup>21)</sup>

이와 달리 ‘외, 위’의 단모음화의 원인은 모음체계의 공백 때문만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2c)은 ‘이, 애, 에’가 단모음화된 이후의 19세기 무렵의 모음체계이다. (2c)은 (2b)과는 달리 후설저모음의 공백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안정적으로 보인다. 비교적 안정적인 모음체계인 (2c)의 전설계열에 ‘외, 위’의 단모음 ‘ö, ü’가 자리를 잡게 된 것은 모음체계의 공백 혹은 불균형 때문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하향이중모음 ‘외, 위’가 단모음화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 2. 전설성 동화에 의한 단모음화

19세기 후기 국어를 다룬 이병근(1970:381)에서는 치찰음 아래에서의 ‘ö, ü’가 i역행동화에 의한 ‘ö, ü’ 형성에 최초로 음성적 기여를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또 이 시기에는 ‘a→e, o→e’ 역행동화의 예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원순적 모음계열의 경우는 드물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하향이중모음 ‘외, 위’의 단모음화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즉, 하향이중모음 ‘외, 위’의 단모음화는 치찰음 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후의 연구에서도 ‘외’와 ‘위’가 주로 치찰음을 포함한 중자음 뒤(본고의 전설성 자음 뒤)에서 단모음화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sup>22)</sup>

21) 후술하겠지만 전설성 동화와 관련된 상호동화에 의해서도 단모음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된 원인은 모음체계에 의한 것이다.

22) (3)은 김봉국(2006:156-172)의 자료를 토대로 단모음 ‘ü, ö’의 실현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 양상은 표기상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과 내국인 학자의 증언이 참고가 된다.

(3) ㄱ. 개화기 이후의 ‘ü’ 실현 양상

외국인 학자	19세기 말~20세기 초		20세기 이후
	취, 뒤		(ㄷ, ㅌ, ㅈ) 뒤
내국인 학자	1920년 이전		1920년 이후
	서울	취, 쉬	큰취, 생취, 들취, 날뛰다, 따귀, (ㄷ, ㅌ, ㅌ, ㅈ) 뒤
	경기	(ㄴ, ㄷ, ㅌ, ㅈ, ㅊ) 뒤	
	기타	튀다, 쉬다, 쉬, 튀튀	

ㄴ. 개화기 이후의 ‘ö’ 실현 양상

외국인 학자	19세기 말~20세기 초		20세기 이후
	되다, 획, 쇠, 뵤, 뵤, 되다, 죄		순음, 치음 뒤
내국인 학자	1920년 이전		1920년 이후
	서울	외손떡, 외,	열쇠, 피뢰침, 의뢰심, 무쇠, (ㄷ, ㅌ, ㅌ, ㅈ) 뒤
	경기	쇠(鐵), 뵤(升)	
	기타	외(瓜), 왼손잡이, 뵤, 뵤, 쇠, 뵤다, 뇌(腦)	

(3ㄱ)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따귀’를 제외하면 ‘ü’의 실현 환경이 모두 전설성 자음 뒤임을 확인할 수 있다. (3ㄴ)의 자료에서도 ‘뵤, 뵤’와 같은 순자음 뒤, ‘외’와 같은 어두의 음절초성이 없는 환경을 제외하고 모두 전설성 자음 뒤에서 ‘ö’가 실현된다.<sup>23)</sup> 앞서 II장 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설성 자질이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환경은 국어의 여러 음운 변화를 일어나게

23) 김봉국(2006:177)에서는 중자음 뒤에서의 단모음화가 개화기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의 경우만 중자음의 환경에서 단모음이 실현된다고 보았으며, ‘외’의 경우는 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도 ‘외’의 경우는 예외가 많음을 인정하지만 (3ㄴ)의 ‘ö’는 중자음(전설성 자음) 뒤의 환경에서부터 단모음화가 일어나고, 순자음이나 어두의 음절초성이 없는 환경 등으로 확산되었다고 보기로 한다.

한 환경임을 필자는 주목한다.

진설성 자음 뒤에서 하향이중모음이 단모음화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전에 이것의 단모음화 과정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단모음화가 이루어진 과정에 따라 단모음화의 원인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24)</sup> 하향이중모음 ‘이, 애, 에’는 대체로 축약에 의해 ‘ $\text{ʌy} > \text{ay} > \text{ɛ}$ ,  $\text{ay} > \text{ɛ}$ ,  $\text{əy} > \text{e}$ ’로 단모음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위, 외, 의’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견해가 제시되었다.

- (4) ㄱ.  $\text{uy} > \text{ü} > \text{wi}$  혹은  $\text{uy}(\text{ui}) > \text{wi} > \text{ü}$   
 ㄴ.  $\text{oy} > \text{ö} > \text{we}$  혹은  $\text{oy}(\text{oi}) > \text{we} > \text{ö}$   
 ㄷ.  $\text{uy}(\text{ui}) > \text{wi}$ ,  $\text{ü}$  혹은  $\text{oy}(\text{oi}) > \text{we}$ ,  $\text{ö}$  등

- (5) ㄱ.  $\text{iy}(\text{ii}) > \text{i}$   
 ㄴ.  $\text{iy} > \text{i} > \text{i}$

김봉국(2010:39-44)에 의하면 ‘ $\text{uy} > \text{ü} > \text{wi}$ ’(4ㄱ) 과정은 /ü/가 쉽게 문중되지 않는 점이 문제이고, ‘ $\text{uy} > \text{wi} > \text{ü}$ ’(4ㄱ)와 ‘ $\text{oy} > \text{we} > \text{ö}$ ’(4ㄴ) 과정에서 ‘ $\text{uy} > \text{wi}$ ’와 ‘ $\text{oy} > \text{we}$ ’는 음운론적으로 부자연스러우며 음성적 타당성을 얻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인호(2004:134)에서는 ‘위’와 ‘의’를 부동이중모음으로 설정하였으며, 김봉국(2006:179)에서는 ‘위’를 /ui/로 보기도 하였다.

(4ㄷ)은 하향이중모음 ‘위, 외’의 변화를 복선적 변화로 보는 관점으로, 이 견해는 언어 변화의 역동성과 변화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김봉국(2006:156-174)에서 제시된 개화기 이후

24) 하향이중모음 ‘위, 외, 의’의 단모음화 과정에 대한 연구서는 김봉국(2010:39-44)를 참고할 수 있다.

‘위, 외’의 음가 중에서 단모음 ‘ü’와 ‘ö’가 나타나는 음운론적 환경이 주로 전설성 자음 즉 중자음 뒤라는 점이다. 전설성 자음 뒤에서 제한적으로 ‘ü’와 ‘ö’가 실현된다는 것은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 원인 구명을 위해 중요하다.

(57)은 하향이중모음 ‘의’의 축약에 의한 단모음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중간 과정이 설정되지 않음에 비해, (58)은 중설고모음 ‘i’를 중간 과정으로 설정하고 있다. (58)의 과정은 무엇보다 ‘i’가 국어의 보편적인 음소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로 남아 있다.<sup>25)</sup>

그렇지만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과정에 있어 중간 과정은 단모음화의 원인을 고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본고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본고의 관심은 하향이중모음이 ‘e, ε, ü, ö, i’로 단모음화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중모음의 구조 자체에 의한 전설성 동화 현상은 중간 과정이 무의미하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하향이중모음의 부음 y 혹은 i의 [전설성]이 단모음화에 작용했을 것은 인정된다. 이러한 점은 개화기 이후 ‘위, 외’의 음가가 전설성 자음의 뒤에서 단모음 ‘ü’와 ‘ö’로 실현된다는 점과도 관련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e, ε’로 단모음화된 원인은 주로 모음체계의 공백에 있지만, 이중모음의 구조 자체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 하향 이중모음 ‘위, 외’가 ‘ü, ö’로 단모음화된 원인은 전설성 자음 뒤라는 제한된 환경에 의한 것이다. 이들을 동화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도록 한다.

동화는 동화가 일어나는 방향에 따라 순행동화와 역행동화, 상호동화와

25) 한영균(1990:96)에서는 (57)의 과정에 대해 활음 y는 [전설성]을 i에 넘겨줌으로써 y탈락에 의한 ‘으>이’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았다. 즉 음절 부음인 y의 영향에 의해 핵음이 음성적 변화를 일으켜 일어난 변화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음 전설화 규칙과 하향성 y-삭제 규칙이 적용된 ‘iy>iy>i’의 과정으로 해석될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과정은 중간 과정인 ‘iy’의 음성적 타당성을 증명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ㄴ. ऐ[əy]>에[e]

[-전설성, -저모음성][+전설성, +고모음성]>[+전설성, -저모음성]

ə                      y                      >                      e

(6ㄱ)에서처럼 음절 주음 ‘아[a]’는 음절 부음 ‘y’에 [+저모음성]의 동화를 일으키고, 동시에 음절 부음 ‘y’는 음절 주음 ‘아[a]’에 [+전설성]의 동화를 일으켜 [+전설성, +저모음성]의 단모음 ‘에[ɛ]’가 된다. 따라서 두 소리가 모두 동화음(동화주)과 피동화음을 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동화로 볼 수 있다. (6ㄴ)의 경우도 이와 같이 해석하면 상호동화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국어에서 상호동화의 예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동화의 관점에서 보면 (6)은 상호동화로 볼 수 있다.<sup>29)</sup> 이러한 해석이 인정된다면 ‘/əy/→\*ey→[ɛ]’와 ‘/ay/→\*ay→[ɛ]’ 과정에서 ‘\*ey’와 ‘\*ay’의 과정이 제거되고, 이 과정에서의 ‘y’ 탈락에 대한 의문도 해소된다.

(7) ㄱ. 외[oy]>(…)>외[ö]

[-전설성, -저모음성][+전설성, +고모음성]>[+전설성, -저모음성]

혹은 [-전설성, +원순성][+전설성, -원순성]>[+전설성, +원순성]

o                      y                      >                      ö

ㄴ. 위[uy](ui)>(…)>위[ü]

[-전설성, +고모음성][+전설성, +고모음성]>[+전설성, +고모음성]

혹은 [-전설성, +원순성][+전설성, -원순성]>[+전설성, +원순성]

u                      y(i)                      >                      ü

29) Crowley(1997)에서는 상호동화에 대해 두 음이 상호동화로 서로 영향을 미쳐 변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 양성분들의 자질을 가진 하나의 분절음이 된다고 한다. 아울러 이러한 상호동화는 ‘coalescence’ 혹은 ‘fusion’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http://en.wikipedia.org/wiki/Assimilation\\_\(linguistics\)](http://en.wikipedia.org/wiki/Assimilation_(linguistics))). 결국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축약이라고 설명하던 것에 대해 축약의 원인을 구체화하여 상호동화 혹은 이동동화로 해석한 것이 된다.

ㄷ. 의[iy](ii)>(…)>에[i]

[-전설성, +고모음성][+전설성, +고모음성]>[+전설성, +고모음성]

i y(i) > i

ㄷ'. 의[iy](ii)>(…)>으[i]

[-전설성, +고모음성][+전설성, +고모음성]>[-전설성, +고모음성]

i y(i) > i

(7ㄱ)도 음절 주음 ‘오[o]’는 음절 부음 ‘y’에 [-저모음성]의 동화를 일으키고, 동시에 음절 부음 ‘y’는 음절 주음 ‘오[o]’에 [+전설성]의 동화를 일으켜 [+전설성, -저모음성]의 ‘외[ö]’가 된다. 혹은 음절 주음 ‘오[o]’는 음절 부음 ‘y’에 [+원순성]의 동화를 일으키고, 동시에 음절 부음 ‘y’는 음절 주음 ‘오[o]’에 [+전설성]의 동화를 일으켜 [+전설성, +원순성]의 ‘외[ö]’가 된다고 할 수 있다. (6)의 예와 동일하게 두 소리가 모두 동화음(동화주)과 피동화음을 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동화에 해당한다. (7ㄴ)도 이와 동일하다.<sup>30)</sup>

반면 (7ㄷ)의 경우는 음절 부음 ‘y’가 음절 주음 ‘으[i]’에 [+전설성]의 동화를 일으켜 [+전설성, +고모음성]의 단모음 ‘이[i]’가 되는 역행동화에 해당된다. 하지만 일부 방언에서는 (7ㄷ')과 같이 ‘으[i]’로 단모음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음절 주음 ‘으[i]’가 음절 부음 ‘y’에 [-전설성]의 동화를 일으켜 [-전설성, +고모음성]의 단모음 ‘으[i]’가 되는 순행동화에 해당된다.<sup>31)</sup>

(7ㄱ, ㄴ)의 ‘외, 위’ 단모음화 원인은 위와 같이 이중모음의 구조 자체에 의한 상호동화로 볼 수도 있으나, 단모음화된 ‘외, 위’에 선행하는 자음이

30) 만약 ‘ö’와 ‘ü’를 발음하기 쉽지 않다면 입술을 둥글게 한 후에 ‘e’와 ‘i’를 발음하면 이 단모음들을 낼 수 있다. 이는 ‘외, 위’ 단모음화를 상호동화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31) 하향이중모음 ‘의’가 ‘으[i]’로 단모음화되는 경우는 음절 부음이 탈락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백두현(1992:184)에서의 구성요소가 가진 결합 관계가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속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설성 자질을 가지고 있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의 (8)에서 보는 것처럼 이중동화로도 볼 수 있다.

(8) ㄱ. 쇠(鐵)

[C, +전설성][V, -전설성][S, +전설성]>[V, +전설성]

s o y > ö

ㄴ. 쥐(鼠)

[C, +전설성][V, -전설성][S(V), +전설성]>[V, +전설성]

tʃ u y(i) > ü

(8)의 경우 하향이중모음 ‘외, 위’를 전설성 동화가 원인이 되어 단모음화된 것으로 해석하면 이중동화에 해당한다. 피동화음인 ‘오[o]’와 ‘우[u]’의 앞뒤에 있는 두 소리가 동시에 동화음(동화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ö’는 순자음 뒤, 어두의 음절초성이 없는 환경에서도 실현되기도 하지만, 19세기 이후에 단모음 ‘ö’와 ‘ü’로 실현되는 경우 주로 선행자음이 전설성 자음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sup>32)</sup>

결국 ‘애, 에’ 단모음화는 모음체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상호동화에 의한 전설성 동화가 원인이 되어 일어났다. 이와 달리 ‘외, 위’의 단모음화는 모음체계의 변화와는 관련이 크지 않고 상호동화가 주된 원인 이지만, ‘외, 위’는 이중동화에 의한 전설성 동화가 단모음화를 촉진하였다.

32) (8)과 같이 이중동화로서의 전설성 동화 현상으로 보게 되면 단모음화 과정을 ‘oy(oi)>we>ö’ 혹은 ‘uy(ui)>wi>ü’로 보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이 경우도 이중동화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김봉국(2006:180-181)에서와 같이 ‘위’의 단모음화 과정에 대해서는 복선적 과정, ‘외’의 단모음화 과정에 대해서는 단선적 과정으로 보는 입장이다. ‘uy(ui)>ü’와 ‘uy(ui)>wi’ 변화의 환경을 고려한 것이다. 이들이 단모음화한 후에 다시 이중모음 ‘we’와 ‘wi’로 변화하는 음성적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 IV. 결론

본고에서는 국어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가 ‘으’의 소실로 인한 모음체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전설성]에 의한 전설성 동화 현상과도 밀접히 관련되었음을 고찰하였다. 특히 ‘애, 에’의 단모음화는 주로 모음체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일어났지만, ‘외, 위’의 단모음화는 인접한 음운론적 환경이 주된 원인이었음을 제기하였다. ‘외, 위’의 경우는 단모음화가 주로 전설성 자음 뒤 환경에서 시작되어 다른 환경으로 확산되었다.

먼저 자음과 모음의 공통자질인 [전설성]을 설정하여 근대국어 후기에 일어난 일련의 음운현상을 전설성 동화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즉, 18세기 전후를 기점으로 일어난 일련의 모음변화 중에서 ‘오>어’, ‘으>이’, ‘으>어’는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자음이 [전설성]이라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하향이중모음 중에서 ‘외, 위’가 단모음화된 경우도 선행자음이 주로 [전설성]이다. 따라서 18세기 전후에 일어난 일련의 모음변화가 [전설성]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 원인을 동화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음절 부음 ‘y(i)’에 의한 역행동화로 해석하였지만, 음절 부음 y가 동화음(동화주)으로 피동화음에 영향을 끼치고 난 뒤 자신은 탈락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따라서 국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상호동화와 이중동화로 해석하였다. 상호동화의 경우는 음절 주음이 음절 부음에 ‘혀의 높이’ 혹은 ‘입술의 모양’의 동화를 일으키고, 음절 부음이 음절 주음에 ‘혀의 전후 위치’의 동화를 일으킨다. ‘외, 위’는 이중동화로도 볼 수 있는데, 단모음 ‘외, 위’에 선행하는 자음이 주로 전설성 자질임이 고려된 것이다. 피동화음의 앞뒤에 있는 두 소리가 동시에 전설성 자질을 가지는 동화음(동화주)이기 때문에 이중동화에도 해당된다.

## 【참고문헌】

- 김방한, 『국어모음체계의 변동에 관한 고찰』, 『동아문화』 2,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64, pp.29-80.
- 김봉국, 『개화기 이후 국어의 ‘위, 외’ 음가와 그 변화』, 『이병근선생 퇴임기념 국어학논총』, 태학사, 2006, pp.155-191.
- 김봉국, 『하향이중모음의 연구사』, 『이중모음』, 태학사, 2010, pp.33-52.
- 김성규, 『‘어>에>에’의 변화 과정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28,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3, pp.161-182.
- 김영선, 『개화기 국어의 ‘이(j)’ 동화 현상과 모음 체계』, 『한국어학』 33, 한국어학회, 2006, pp.207-234.
- 김완진, 『국어 모음체계의 신고찰』, 『진단학보』 24, 진단학회, 1963, pp.63-99. [『국어음운체계의 연구』, 일조각, 1971. pp.15-22].
- 김완진, 『모음체계와 모음조화에 대한 반성』, 『어학연구』 14-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78, pp.127-139.
- 김주필, 『17·8세기 국어의 구개음화와 관련 음운현상에 대한 통시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p.122.
- 김차균, 『우리말의 음소와 변별적인 자질』, 『어문연구』 23, 어문연구회, 1992, pp.221-242.
- 김 현, 『/ㄱ/의 음성 실현과 그 실현 조건』, 『국어학』 52, 국어학회, 2008, pp.3-25.
- 김 현, 『상향이중모음에 대한 논점들』, 『이중모음』, 태학사, 2010, pp.53-74.
- 도수희, 『한국어 음운사에 있어서 부음 y에 대하여』, 『한글』 179, 한글학회, 1983, pp.85-132.
- 배주채, 『국어 음운론 개설』, 신구문화사, 1996, pp.107-119.
- 백두현,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태학사, 1992, pp.184-257.
- 송철의, 『국어의 음운현상과 변별적 자질』, 『이기문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1996, pp.342-356.
- 신승용, 『하향성 이중모음의 단모음화와 음라우트와의 상관성』, 『서강어문』 13, 서강어문학회, 1997, pp.27-56.
- 오정란, 『중세국어 이중모음체계의 변화와 최적성 이론』,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11-1, 한국음운론학회, 2005, pp.83-103.
- 오종갑, 『ㄱ, ㅋ, ㆁ, ㆁ의 변천』, 『한국학논집』 10, 계명대학교, 1983, pp.285-305. [『국

- 어 음운의 통시적 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88, p.178].
- 이기문,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1998, pp.208-212.
- 이병건, 『현대 한국어의 생성 음운론』, 일지사, 1976, p.188.
- 이병근, 『19세기 후기 국어의 모음체계』, 『학술원논문집』 9, 대한민국학술원, 1970, pp.375-390.
- 이병근, 『현대한국방언의 모음체계에 대하여』, 『어학연구』 7-2, 1971, pp.11-17.
- 이병근, 『자음동화의 제약과 방향』, 『이승녕선생고회기념 국어국문학논총』, 1977, pp.246-264.[『음운현상에 있어서의 제약』, 탑출판사, 1979, pp.5-10].
- 이병근, 『음운현상에 있어서의 제약』, 탑출판사, 1979, pp.148-152.
- 이승녕, 『15세기의 모음체계와 이중모음의 Kontraction적 발달에 대하여』, 『동방학지』 1, 1954, pp.331-432.
- 정승철 · 정인호 공편, 『이중모음』, 태학사, 2010, pp.33-74.
- 정영호, 『동화현상으로서의 ‘·>ㅣ’ 변화 연구』, 『우리말연구』 25, 우리말학회, 2009, pp.187-215.
- 정인호, 『하강 이중모음과 부동 이중모음의 음변화』, 『어문연구』 12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pp.119-143.
- 정인호, 『평북방언과 전남방언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태학사, 2006, pp.31-77.
- 최명옥, 『월성 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2, pp.148-149.
- 최전승, 『국어 i-Umlaut 현상의 통시적 고찰』, 『국어문학』 19, 국어문학회, 1978, pp.173-212.
- 한영균, 『모음체계의 재정립과 ‘·’의 제2단계 변화』, 『애산학보』 10, 애산학회, 1990, pp.85-109.
- 한영균, 『모음체계의 재정립과 현대국어의 비음절화』, 『진단학보』 71 · 72, 진단학회, 1991, pp.249-264.
- 허 응, 『개고신판 국어음운학』, 정음사, 1965, p.259.
- Chomsky, N. and M. Halle,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Harper & Row, 1968, pp.304-306.
- Crowley, Terry,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Linguistics*』, 3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Hyman, L.R, 『*Phonology:theory and analysis*』,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5, p.48.

- Jakobson, R. and M. Halle, 『*Fundamentals of Language*』, The Hague:Mouton, 1956, p.29.
- Kim Chin-Wu, 『The vowel system of Korean』, 『*Language*』 44. 1968, pp.516-527.[『*Sojourns in language II*』, Tower press, 1988, pp.483-484]
- Kim-Renaud, Y, 『i-i Monophthongization in Korean』,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Seoul:Hanshin, 1986, p.126.
- Lass, R, 『*Phon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p.173-174.

**Abstract**

A Cause on the monophthongization  
of the Falling diphthong in Korean

Jeong, Yeong-ho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quire into by what cause the monophthongization of the Falling diphthong is done. Phonological phenomenon that happened since the 18th century in the Korean can be interpreted as a assimilation by the frontal feature. Because the frontal consonant preceded to or went back to it. Also, it can be seen as the Frontal assimilation that preceding consonant mainly due to the frontal feature in the case of monophthongization ‘외, 위’ in the Falling diphthong.

It is shown that the monophthongization of the Falling diphthong by the deletion of the ‘ㄹ’ has been dominated by the change of vowel system. And it is found out that the frontal feature are caused by the frontal assimilation took place ‘애, ऐ’, in a vowel system, mainly because of the space monophthongize vowels. And it also took place by mutual assimilation. ‘외, 위’ in the environment after the frontal consonant by mutual assimilation or double assimilation begins to change toward monophthongization. And it will spread to other environments.

In conclusion, it is equivalent to the mutual assimilation because syllabic and nonsyllabic caused assimilation by a ‘tongue height’ and ‘front-back position of the tongue’ each other. Also, it can be seen as the double assimilation that the frontal feature mainly place to front and back of the sound in the case of monophthongization ‘외, 위’.

Key words : Falling diphthong, Monophthongization, Frontal feature,  
Assimilation, Change in vowel system.

정영호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소 : (740-766) 경북 김천시 신음동 1309 김천신음그린빌 202-1001호

전화번호 : 010-5359-8805

전자우편 : jyh3535@hanmail.net

이 논문은 2012년 7월 17일 투고되어  
2012년 8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8월 17일 게재 확정됨.